

솔향공원(둘리공원) 해설시나리오(학생)

1. 기획목적

○ 속리산의 대표적인 소나무인 “정이품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수종인 “소나무”의 식생, 형태, 분포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나리오입니다.

○ 정이품송과 같은 한국의 소나무류를 알아보고 보전가치가 높은 소나무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자연을 아끼고 소나무를 사랑할 수 있는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상자 : 학급 단위, 학생(25~100명)
- 대상지 : 충북 보은군 솔향공원, 둘리공원
- 준비물 : 필기도구
- 계절 : 봄, 여름, 가을, 겨울
- 관람시간 : 1시간(휴관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3. 프로그램 시나리오

◎홍보관

1) 해설자 소개 및 참가자들 간의 인사

안녕하세요?

(날씨, 사는 곳 등을 자연스럽게 물으면서 학생들의 분위기를 파악한다.)

저는 속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 000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속리산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법주사, 정이품송 등 많은 대답이 나온다.) 예 법주사도 유명하지만 역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소나무 “정이품송”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이품송과 같은 소나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과 함께 솔향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1만4천여 그루의 다양한 소나무가 우거진 숲에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나무 특화 공원이예요. 여기에는 정이품송의 아들 소나무와 황금소나무, 반송, 백송 등 많은 희귀소나무가 공원을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소나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이품송 이외에도 얼마나 보전가치가 높고 귀중한 소나무들이 많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나무의 일생



와~ 소나무의 일생이 한눈에 펼쳐져 있네요! 흔히 “한국인은 소나무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생이 소나무의 일생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음은 물론 그 정신까지도 소나무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민족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역경 속에서도 오랜 세월동안 민족의 주체성을 지킨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점과 높고 험한 절벽의 틈새에서도 굳건한 모습으로 비바람을 견디며 오랜 세월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의 모습이 너무도 닮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로써 수천년 동안 종교, 사회, 예술, 문화 등등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왜 소나무라 부르는지 아세요? 소나무의 어원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수리’에서 ‘술’로 바뀌어 오늘날에는 ‘솔’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도 우리민족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의 경우 금줄(禁줄: 출산 시, 동아줄에 숯과 함께 남아의 경우 빨간 고추를, 여아의 경

우 생솔가지를 매달아 문 앞에 걸어두는 줄)에 생솔가지를 달아두어 아이가 성장하여 바느질을 잘하길 기원하였고, 그 인간이 죽어서는 소나무로 짠 관에 누워 소나무 숲에 묻혀 자연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러므로 소나무는 진정 인간의 탄생과 죽음, 즉 시작에서 끝까지 같이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소나무와 생활



소나무는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식생활에서는 소나무의 잎, 껍질 등을 이용해 떡, 차, 전통주 등을 만든답니다. 먼저 떡의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송편 좋아하나요? 주로 추석명절날 많이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송편 위에 솔잎이 뿌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물론 솔잎을 갈아서 직접 떡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송편에 솔잎을 뿌려주게 되면 송편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떡에 소나무 잎의 향이 배이며, 솔잎에 함유된 테르펜(피톤치드의 한 종류) 등의 살균성분에 의해 떡이 잘 상하지 않고 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솔잎차는 10~20년생 소나무 잎을 따서 설탕과 함께 약 1주일간 발효시키거나 삶은 솔잎을 다시 말려 가루를 내어 만드는데, 솔잎에는 비타민A, C, K, 엽록소, 칼슘, 철분 외에 인간의 체내 합성이 불가능한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고 말초신경을 확장시켜 고혈압, 심근경색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솔잎차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1주일이 아니라 1~2달간 발효시킨 후 희석식 술을 더하면 좋은 술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니 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다는 옆에 계시는 담임선생님이 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소나무와 민간요법



예로부터 소나무를 이용한 신앙과 치료는 우리 선조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소나무를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소나무와 관련된 신앙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신성한 소나무를 통한 치료가 민간요법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민간요법이란 민중들이 산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구해 사용한 처방으로 그 효능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요법의 지식이 계속 쌓여 현대의 의학, 의술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먼저 소나무와 관련된 민간요법 재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령”입니다. 복령은 땅속에서 소나무의 나무뿌리에 기생하는 버섯류인데 색깔에 따라 적복령과 백복령으로 나눈답니다. 둘 다 모두 좋은 한약재로 쓰이는데 이뇨, 진정 등에 효능이 있어 신장병, 방광염 등의 질환에 쓰인답니다.

다음은 “솔방울”인데요. 솔방울로 장식물이나 장난감을 만드는데도 쓰이지만 한 방에서는 송구, 송과, 송란 등으로 불리며 변비나 어지럼증 등을 치료하는데 쓰인답니다. 어때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던 솔방울이 약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니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혹시 상처가 난 소나무에서 무언가 하얀 진액이 나온 것을 본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한번쯤은 본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얀 진액은 “송진”이라고 하는데 살균성이 강하며, 아픔을 멈추고 새살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상처, 화상 등에 외용약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송진은 지금도 약용 도료, 살충제, 잉크의 재료부터 음식재료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버섯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버섯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버섯은 무엇일까요? 물론 상황버섯이나 영지버섯도 아주 귀한 버

섯이지만 식용, 약용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봤을 때는 역시 송이버섯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이 송이버섯은 주로 소나무 아래에서 나며, 주로 가을에 따서 그대로 식재료로 쓰기도 하고 말려 약재로도 씁니다. 이 송이버섯은 항암효과가 높은 버섯 중 하나여서 아주 비싸게 팔린답니다.

5) 소나무로 만든 전통 도구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흔히 나무로 만든 가구가 뭐가 있을까요~? 식탁이나 옷장 등 현대사회에서도 나무로 만든 가구들은 고급용품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가구에 쓰이는 목재는 대부분 수입산이에요. 그 이유는 요새 우리나라에 목재로 쓸 만한 나무가 많이 없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수입목재로 만드는 가구가 가격이 싸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은 농사나 생활에 필요한 도구나 물품을 소나무를 이용하여 많이 만들었습니다. 소나무의 경우 가공이 편리하고 만든 후 목재의 뒤틀림이 없어 쉽게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지 않는 최고의 재료로 손꼽혔습니다. 여기 보시는 도구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소나무를 약이나 음식에도 쓰지만 생활용품이나 건축물에 최고의 재료이기에 궁궐의 대들보부터 생활용품인 도마며, 절구며 생활 구석구석에 소나무가 사용되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좋은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쓰는 가구들 중에서 최고 좋은 재료는 소나무로 만든 가구일거예요.

6) 옛 기록물에서 담긴 소나무



예부터 소나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곳곳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우리 민족의 상징이기도 하며, 선비님들이 갖춰야할 덕을 표현할 때도 많이 비유가 되곤 했어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소나무인 만큼 고문서에서도 소나무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는데요. 목민심서에는 소나무를 사용하는데 있어 관리하고 준수해야할 사항까지 기록할 만큼 우리민족에게 있어 소중한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경국대전”, “대전통편”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른 나무와 달리 삼국 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며 소나무 보호정책을 강력하게 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험관

1) 소나무의 형태



소나무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데요. 한국의 소나무 역시 한반도 전역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소나무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굉장히 친한 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약 여섯 가지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북형, 금강형, 안강형, 위봉형, 중남부 고지형, 중남부 평지형이 있습니다. 그 중 금강형은 우리가 금강소나무라 부르는 소나무 형태인데, 키도 크고 굵기도 아름답기로 자라납니다.

한편 이런 금강소나무의 모양을 “통직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옛날엔 임금님이 주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궁궐을 지을 때만 사용하였는데, 금강소나무를 벨 때는 최고의 목수가 산신령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하여 “어명이오!!”를 외치고 베었습니다. 지금도 금강소나무는 문화재 복원용으로만 쓰이고, 역시 “어명이오!!”를 외칩니다.

2) 소나무 놀이테(나이테)



여러분 여기 보면 소나무의 나이테가 보이시죠?? 나무의 나이테 같은 나무 무늬를 목리(木理)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녹색을 보면 눈이 편안해 진다고 알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목리도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보았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무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상이나 가구들을 만드는 재료도 원목이 아니라 파티클보드라고 하는 합판 같은 것입니다. 나무를 잘게 부셔서 접착제로 압착을 시킨 거예요. 파티클 보드는 걸쭉데기에만 나무무늬를 넣는데, 여기서 걸 표면에 다른 무늬나 색을 넣지 않고 목리만 넣은 것도 바로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열어보면서 소나무 나이테 무늬를 보도록 해요.

10) 정이품송 이야기



여기는 지금부터 약 450년 전 세조 임금님이 피부병이 있어 요양 차 이곳 보은의 법주사에 행차한 것을 미니어처로 만든 것인데요. 이곳 보은에는 세조 임금님과 얽힌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정이품송이 임금의 가마를 들어 올려 벼슬을 받게 된 일화지만, 이 외에도 속리산에서 목욕을 하시고 피부병이 나았다는 복천암 목욕소 일화, 세조 임금께서 강연을 벌였다는 문장대 일화 등 세조 임금님과 속리산이 연결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명한 정이품송이 벼슬을 받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1464년 세조 임금님이 이곳 법주사로 들어갈 때, 세조 임금님께서 이 소나무를 지나면서 타고 있던 가마가 소나무 가지에 걸릴까봐 염려되어 “연(輦) 걸린다.”하고 말 했습니다. 그러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세조 임금님을 무사히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연걸이 소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세조 임금님이 법주사에서 한양으로 돌아올 때 비가 내렸는데 정이품송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때 세조 임금님이 “올 때는 신기하게 나를 무사히 지나도록 하더니, 이제 갈 때는 비를 막아주니 참으로 기특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조 임금님이 이 소나무에 정이품(正二品)의 벼슬을 내렸어요. 지금의 직위와 비교한다면 장관이나 도지사 정도의 높은 관직에 속한답니다.

10) 소나무를 찾아서(영상관)



자~ 여기서는 소나무와 솔향공원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모두 조용히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11) 천연기념물 소나무들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하고 귀중한 동, 식물들을 법으로서 그 동물과 서식지, 식물과 자생지, 지질 및 광물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또한 그 보존가치가 높아 보호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소나무가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희귀하고, 오래된 소나무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정말 보존가치가 높은 것만 지정한 천연기념물인데도 이렇게 천연기념물 소나무

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서 오래 전부터 소중히 아끼고 가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속리산의 자랑 정이품송도 보이네요. 어때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 기타(개별 활용 요망)

1) 도깨비 공원



자~ 소나무와 더불어 우리 민족과 친한 것이 있다면 도깨비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도깨비를 소재로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사실 여기 보이는 도깨비들은 우리나라 전통의 도깨비가 아니랍니다. 지금 이 도깨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옛날이야기 ‘흑부리 영감님’에 나오는 도깨비죠.

사실 이 도깨비들은 100년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인들이 우리민족의 문화를 일본의 문화와 동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도깨비를 일본의 요괴 ‘오니’(鬼 ; おに)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그 오니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로 왜곡되어 전해 내려온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도깨비를 오니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도깨비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현재까지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네 친숙한 도깨비를 어느 정도 추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민족의 도깨비는 이렇게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 뿔이 없고 코가 주먹코이며, 방망이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씨름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장난치며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서 우리의 진짜 도깨비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죠?? 비록 모습은 이렇지만 도

깨비가 소나무처럼 우리민족과 친하다는 것은 아니까 여기서도 많은 추억을 남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돌리공원



여러분 돌리 아시죠?? 여기는 1983년 탄생한 돌리가 있는 곳이에요.(선생님과 동갑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뽀로로 뽀통령이 가장 인기가 많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만했을 적에는 이 돌리가 뽀로로 만큼 인기가 많았답니다.

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개울에 걸린 무지개 나무다리를 건너면 전망대가 있고, 더 안쪽으로 탐험을 하게 되면 ‘악마의 미로’, ‘바위산 요새’, ‘우주를 표류하는 돌리’ 같은 놀이터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돌리와 돌리의 친구들이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으니 같이 사진도 많이 찍기 바랍니다. 물론 뛰거나 장난을 심하게 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천천히 안전하게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돌리를 찾아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많은 추억들 담아 오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